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News Literacy Self-Efficacy on News Content Usage: Based on News Consumers in 20s

이정훈*, 이두황**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Jeng Hoon Lee(jenghoonlee@daejin.ac.kr)*, Doo-hwang Lee(Doolee@kh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로서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하고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뉴스리터러시를 뉴스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 변수가 뉴스 소비자의 뉴스 미디어 소비 형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체계, 그리고 뉴스처리 관여도를 포함한 관련 결정요인들과 관련되는지 온라인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검색/이해' 뉴스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은 뉴스 소비자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뉴스 처리 관여도의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달/표현' 뉴스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은 소비자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와 전통적인 뉴스미디어 사용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 교육의 구성 요소가 뉴스 리터러시에 어떤 형태로 연관되고 이렇게 확립된 뉴스 리터러시가 실질적으로 뉴스 소비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는지를 하나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뉴스 리터러시 | 뉴스 교육 | 뉴스 콘텐츠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introduce 'news literac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evaluate news education in digital age. Specifically, this study conceptually defined news literacy as news literacy self-efficacy and empirically tested how this variable is associated with other related determinants including users' news media consumption pattern, news knowledge structure on news content production, and involvement with news. The findings showed that users' 'searching/understanding' news literacy self-efficacy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ir knowledge structure and involvement with news, whereas users' 'sharing/expressing' news literacy self-efficacy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ir knowledge structure. The findings also demonstrated that users' 'searching/understanding' news literacy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ir consumption of new types of news media, whereas users' 'sharing/expressing' news literacy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ir consumption of traditional news media. As a result, this study practically suggests how news literacy is associated with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news consumption and news education.

■ keyword : | News Contents | News literacy | News Education |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채널로서 작동하는 뉴스 소비의 지속적 감소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뉴스 소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뉴스의 소비와 활용은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당위적인 의무로 간주하면서 뉴스를 적절하게 소비하지 않는 현상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많다[1]. 따라서 뉴스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나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뉴스 수용과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하는 측면에서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습하는 교재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스 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뉴스 교육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개념인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를 제시하고 뉴스 리터러시와 실질적 뉴스 소비 형태와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뉴스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능력과 지식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뉴스 소비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틀로 확장,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뉴스 교육의 최종 결과물인 뉴스 리터러시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뉴스 교육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검증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뉴스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과정의 요소 중 어떤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향상에 연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뉴스 교육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론적 개념들을 활용해서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의 향상에 대한 평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스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뉴스 소비와 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요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뉴스 리터러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는 뉴스 교육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1.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뉴스

‘뉴스(News)’는 미디어 콘텐츠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 우선, 뉴스는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거나 방송되는 새로운 사건을 의미하거나, 중요성과 잠재적 흥미라는 뉴스 가치를 가진 사건, 사고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3]. 또, 뉴스는 언론사에 의해 생산되는 메시지나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메시지나 정보로 규정될 수 있다[4].

정치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뉴스는 사회조직체계 중의 일부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다. 뉴스를 다양한 뉴스 제작 주체들, 정치권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원, 시민,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정의하기도 한다[5]. 사회 구성원들은 뉴스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인식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제시된

뉴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식의 원천으로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정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적 행동 양식과 태도를 습득하는 정치사회화를 획득하고 있다[6]. 다양한 정치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을 구성하고 다양한 이슈를 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7].

2. 디지털 시대의 뉴스 소비

다양한 뉴스 매체에 의해서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뉴스가 공급되는 미디어 환경은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 공론장이 지배되는 뉴스 환경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뉴스 공급의 확대와 편리성은 지배적인 대중 매체에 의한 공론장의 왜곡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공론장의 형성을 기대하게 되었다[8].

이러한 다양성과 편리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뉴스 소비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성장하고 디지털 매체 사용과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서의 뉴스 소비 감소는 더욱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별 뉴스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모든 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소비는 2006년 하루 평균 111분이었던 것이 2010년 92.8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미국 퓨 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조사대상 중 19%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010년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하 성인의 27%가 전혀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8세 이상 24세 이하 어린 연령대의 31%는 전날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공급과 유통의 다원화는 총체적인 뉴스 소비보다는 파편화된 뉴스 소비로의 경향을 강화하게 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뉴스의 제목이나 최신 정보만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1]. 손쉬운 소비에 적합하게 파편화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많은 기사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수용자’도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제목이나 비슷한 최신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뉴스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11].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하루 24시간 뉴스가 제공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뉴스 피로감(news fatigue)’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수용자가 원하는 시기와 내용을 검색해서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적극적인 정보 검색을 통한 능동적인 뉴스 소비 형태보다 주어진 정보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가는 무기력한 뉴스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11]. 이러한 무기력한 뉴스 소비는 뉴스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고 뉴스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뉴스에 대한 수용을 위한 노력의 정도도 낮출 수 있다. 미국인의 다수는 디지털 뉴스 환경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뉴스 흐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나 학습 없는 뉴스의 수용과 처리는 뉴스를 피상적이고 이미지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 뉴스에서 제공하는 사건, 사고를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 지식이 없이 단순한 구경거리(spectacle)로 취급하는 것은 실제로도 파악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도 수많은 관련 정보의 흐름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못하게 된다. 이러한 뉴스 처리 경향은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할 때 피동적이고 무관심하게 정보를 처리하게 만든다[12].

3. 뉴스 교육의 현황

뉴스 교육 혹은 뉴스 수용자 교육 영역은 현재까지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기보다는 미디어 교육의 하부 개념 정도로 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국내 뉴스 교육은 미디어 교육의 영역으로 시작되기 보다는 정책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수용에 대한 교육은 최근에 신문 산업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여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뉴스에 전반적인 관심의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 신문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13].

다양한 뉴스 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신문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활용 교육은 대표적인 뉴스 매체인 신문을 교육 과정에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사유를 행하고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높은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뉴스 매체의 가치를 높이고 친밀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NIE 교육은 젊은 세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연령대의 인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문 기사를 보다 능숙하게 소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NIE 교육이 가져오는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NIE 교육에 의해 뉴스 소비 자체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NIE 관련 연구들이 NIE 교육의 가지는 긍정적 효과들, 특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같은 효과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15-17]. 반면, 미디어 콘텐츠의 비판적 수용능력과 현실적 활용에 대한 설명 같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IE 교육이 직접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NIE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TV 뉴스프로그램 이용시간이 NIE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길었지만, 신문과 인터넷 뉴스의 사용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4.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화

미디어 교육에서 뉴스 교육이라는 개별적인 개념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교육은 뉴스라는 미디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 콘텐츠가 가지는 특수성은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틀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대중 매체 콘텐츠의 유해성을 전제하고 유해한 미디어 콘텐츠 중독에 대비하

는 능력을 강조하지만[21], 뉴스 콘텐츠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은 정보를 둘러싼 환경의 개념을 배제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처리하고, 위치시키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19]. 반면, 뉴스 콘텐츠 수용의 관점에서는 급감하는 뉴스 소비나 뉴스에 대한 관심의 감소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로서 뉴스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 교육을 규범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일반적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뉴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결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뉴스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 설정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라는 개념은 뉴스 수용에 대한 능력을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개념화 시도들 중, 뉴스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사 수용능력[20], 다양한 뉴스 정보원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21], 뉴스교육에 대한 결과물로 달성된 뉴스 소비 능력과 기술 [22]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시도들은 일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뉴스라는 특정한 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리터러시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아직은 개별적인 연구를 위해서 개념을 제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뉴스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형태의 뉴스를 소비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미디어 콘텐츠를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기술(skill)이나 능력(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23]. 반면, 뉴스 리터러시의 특수성은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뉴스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인 노출을 하고자 하는 관점(perspective)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콘텐츠를 수용, 분석, 해석, 활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용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수용자의 이러한 기술의 획득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사용 의지 혹은 사용 경향은 뉴스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 소비활동을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정보 소비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콘텐츠를 접근, 수용, 활용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콘텐츠의 소비 성향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는 뉴스에 노출되었을 때 단순한 자극과 반응식의 소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뉴스 콘텐츠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행위를 발현하는 원인으로 인지적요인과 환경적요인 그리고 행위적 요인의 상호 교류에 의한 결과물로 제시하였다[24][25].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뉴스 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 뉴스 미디어 이용 형태라는 행위적 요인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지적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뉴스 리터러시 영향 요인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문헌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 능동적 뉴스 소비 능력과 연관이 있는 요소로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 처리 관여도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소들과 뉴스 리터러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5.1 뉴스 리터러시와 뉴스 소비 성향

본 연구는 반두라의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이론적 바탕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소비 혹은 수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News Literacy Self-Efficacy)으로 개념화 하였다[24][25].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행위를 일정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정의 되어 진다. 이러한 개념이 뉴스 리터러시와 연결될 때, 자기효능감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뉴스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콘텐츠를 주체적이고 의식적으로 선택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개인적 신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극적인 뉴스 수용뉴스 소비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효능감(뉴스 검색/이해 자기 효능감)과 자신이 검색한 뉴스와 정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효능감(뉴스 정보 전달/의견 표출 효능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정보나 뉴스를 능동적으로 뉴스 생태계에서 표현하는 수용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거나 수용하는데 이전 세대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보다는 포털, 블로그,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뉴스 소비의 능력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뉴스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뉴스 소비 형태는 뉴스 리터러시를 반영할 수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뉴스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뉴스 소비를 회피하는(이탈형) 경향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매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선택해서 사용하는(복합형)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은 복합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혀 없지만, 대재 이상의 집단에서는 2개 이상의 뉴스원을 사용하는 집단이 전체의 약 7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9].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뉴스 소비자가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뉴스미디어 이용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뉴스 소비자의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뉴스미디어 이용이 높을 것이다.

5.2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라는 특수한 콘텐츠가 가지는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은 뉴스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콘텐츠를 이해하고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뉴스 리터러시의 다른 구성 요소의 활용에도 유용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는 크게 뉴스 콘텐츠 구조 측면과 뉴스 제작 측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뉴스 콘텐츠 구조 측면은 개별적인 뉴스들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형태와 방식에 관한 지식 체계이고 뉴스 제작 측면은 개별적인 뉴스 콘텐츠가 가지는 차이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저널리즘 제작 관행에 관련된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뉴스 채널 자체의 기술적 특징보다는 전반적인 뉴스 콘텐츠에 포함된 잠재적 구조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뉴스 콘텐츠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저널리즘의 관행 중 대표적인 것들은 게이트키퍼링과 틀 짓기 관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조직체는 근본적으로 관료집단이기 때문에, 뉴스가 선택되고 결정되는 뉴스 생산과정에 미디어 조직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들은 틀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일상적, 관행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정보를 인식하고, 인지적 범주로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키징화하는 것이다[26]. 뉴스를 생산하는 일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몇 가지 틀을 가지고 사실, 사건, 이슈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의 틀에 맞게 뉴스를 작성하고 보도하고 유통하게 된다. 미디어 틀은 단순히 다른 사건이나 쟁점들보다 특정의 사건이나 쟁점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보도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별도의 지식이 없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반두라의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측면에서 이러한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 체계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정 행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enactive experience)과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25]. 그러나 뉴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지식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자에게 뉴스 생산자와 같은 전문적인 저널리스트 같은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enactive learning)으로 얻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지식체계는 전문적인 서적이나 수업을 통하여 얻는 경우나 주위의 전문 저널리스트를 통하여 얻어지기 많기 때문에 간접적 혹은 대리적 사회 경험(vicarious learning)을 통해 배우기 쉽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통한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체계는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과 능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의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뉴스 소비자가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체계가 높을수록 그들이 가지는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소비자가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5.3 뉴스 처리 관여도

뉴스가 부정적이고 성가시고 자신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게 만드는 경향은 사람들에게 뉴스 소비에 별다른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의식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최근의 젊은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이다[11][23].

뉴스 콘텐츠의 처리 과정은 ‘의식적 처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의식(consciousness)’(Pot-ter, 2004)은 수용자가 콘텐츠를 처리할 때 얼마나 인지적 선택을 하면서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의식적 콘텐츠 처리와 무의식적 콘텐츠 노출이라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무의식적 처리는 특별한 목적이나 선택 없이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의식적 처리는 수용자가 끊임없이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지하면서 어떤 대안들속에서 현재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진행되는 미디어 수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여도(invovement) 는개인의 관심 등 내재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이 지각된 관련성으로 정의 된다[27]. 종종 관여도는 사회 심리학에서 또한 개인이 한 메시지를 인지적으로 찾아내서 처리하려는 동기로 정의되기도 한다[28]. 이러한 개념이 뉴스 관여도로 확장될 때, 뉴스에 관여도가 높은 뉴스 소비자일수록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보다 뉴스를 능동적으로 찾고, 주목하고, 신중하게 처리 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반두라의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측면에서 뉴스 관여도는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라는 뉴스 관련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자기 관찰(active self-observation)라는 하나의 지수로 재해석 될 수 있다[29]. 즉, 관여도는 뉴스 소비자가 자신의 뉴스 소비행위를 스스로 주목하고, 그 행위를 개인적이고 사회적 규범에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소비행위를 발현시키는 인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뉴스 관여도는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 체계와는 달리 이용자의 직접적인 뉴스 소비 경험(enactive experience)과 대리적인 타인의 뉴스 소비경험(vicarious experience)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인지과정을 통해 축적된 뉴스 관여도는 뉴스를 이용하고 뉴스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과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뉴

스 소비자의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뉴스 소비자가 뉴스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들이 가지는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소비자가 뉴스 관여도가 높을수록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뉴스미디어 이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대상을 20대 성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성세대에 비해 뉴스 소비와 활용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알려졌지만, 디지털뉴스환경에서 다양한 뉴스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중의 하나이고 본격적으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소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2011년 6월 6일부터 6월 12일 까지 일주일동안 전문 리서치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25,22세(표준편차 = 2,56) 이었다. 학력은 고졸 13명(8,3%), 대졸 이상 143(91,7%) 이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개념 모델의 검증을 위해 AMOS 6,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하였다.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2.1 뉴스미디어 사용 형태

개념적으로 종이신문, 지상파TV뉴스, 케이블뉴스, 라디오뉴스를 젊은 층이 이용하는 전통적인 뉴스매체로 보았고, 인터넷 종이신문 사이트, 인터넷 전문뉴스 사이트, 포털 뉴스사이트를 뉴미디어뉴스매체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인터넷 종이신문 사이트는 다른 전통적인 뉴스매체와 함께 전통적인 뉴스매체로 나타났고, 인터넷 전문뉴스

사이트와 포털 뉴스사이트는 새로운 뉴스매체로 구분하였다.

2.2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

본 연구의 뉴스이용자의 뉴스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을 1)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과 2)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 효능감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여섯 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20대 뉴스이용자의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표 1].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들을 SPSS 15.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축요인분석 (Principal Axix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정하고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사각회전 (Direct Oblimin)방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고유값 (Eigen Value)이 1 이상 되는지를 파악하고 포함할 항목들이 요인 적체치가 20~30 이상이 되고 공유치 (communality)가 40이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예상한대로 뉴스 리터러시 관련 여섯 가지 설문문항은 두 가지 종류의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인 뉴스 검색과 이해 관련 자기 효능감 측정을 위해 총 네 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 효능감 측정을 위해 총 2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 뉴스리터러시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요인1	요인2	평균값
뉴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0.70		4.01
뉴스에서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0.84		3.92
뉴스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다	0.80		3.91
중요한 뉴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0.78		3.90
블로그나, 미니홈피,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중요한 뉴스에 대한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0.92	3.34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0.85	3.30
신뢰도(Reliability)	0.80	0.78	

2.3 뉴스 속성의 지식체계

뉴스속성의 지식체계에 대하여 본 연구는 뉴스소비자가 뉴스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수준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뉴스 속성의 지식체계를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문항은 ‘뉴스는 현실에 대한 편집된 사실이다’, ‘뉴스는 다양한사람들(취재원, 광고주, 독자 등)의 이해관계 결과물이다’, ‘뉴스는 언론사 조직 내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이다’등 3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2.4 뉴스 관여도

본 연구에서 뉴스 소비자의 뉴스에 대한 관여도는 포터[23]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통제 소재 (personal locus) 라는 개념에 바탕으로 미디어콘텐츠 수용과정에서 뉴스를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지각된 관련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뉴스 관여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문항은 ‘뉴스는 나에게 큰 관련이 없다’, ‘뉴스는 매일 보기에 나에게 지루하다’, ‘뉴스는 나에게 너무 어렵다’ 등 3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이 문항들은 뉴스의 부정적인 관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에는 역방향으로 다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될 모델에는 뉴스속성의 지식체계와 뉴스관여도는 외생요인으로,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과 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효능감은 중간 내생변인(매개변인)으로, 뉴스미디어 사용형태는 최종내생변인으로 설정됐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6.2$, $df = 69$, $\chi^2/df = 1.39$, $p < .05$, $GFI = .92$, $CFI = .95$, $RMSEA = .05$ (90%CI: .02 ~.07) 등으로 전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일치할 정도로 양호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은 기존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뉴스미디어를 이용(β

=.06, $p > .10$)하는 것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블로그나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처럼 새로운 뉴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beta = .23$,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효능감은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과 반대로 기존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뉴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beta = .27$, $p < .001$)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블로그나 트위터같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뉴스미디어를 이용($\beta = .03$, $p > .10$)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뉴스미디어 이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자기 효능감의 종류와 뉴스미디어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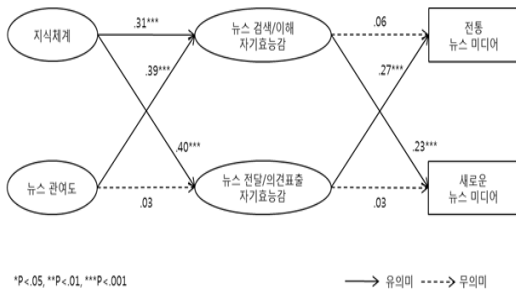


그림 1. 뉴스 리터러시와 뉴스 소비 모형

둘째, 수용자의 뉴스속성에 대한 지식체계는 뉴스 검색/이해 자기 효능감($\beta = .31$, $p < .001$)과 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 효능감($\beta = .39$, $p < .001$)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용자가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을 갖출수록 두 가지 형태의 수용자의 뉴스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두 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뉴스관련도는 뉴스 검색/이해 자기 효능감($\beta = .31$, $p < .001$)을 증가시키지만 뉴스 전달/의견표출 자기 효능감($\beta = .03$, $p > .10$)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뉴스 전달/자기표현 자기효능감은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과 달리 뉴스관련도와는 상관없이 수용자의 뉴스속성

의 지식체계에 의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세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수용자의 뉴스 속성에 대한 지식체계, 뉴스 처리 관여도와 뉴스 리터러시 효능감, 그리고 뉴스 매체 이용 형태와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뉴스 리터러시 효능감을 뉴스 검색 및 이해 자기 효능감과 뉴스 전달 및 의견 표출 자기 효능감으로 정의하면서 두 가지의 자기 효능감이 개별적으로 뉴스 속성에 관한 지식체계와 뉴스 처리 관여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두 가지 형태의 뉴스 매체 이용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뉴스 소비자의 지식체계가 뉴스 검색/이해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새로운 뉴스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뉴스 전달/의견 표출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전통 뉴스 미디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뉴스 관련도는 뉴스 검색/이해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새로운 뉴스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는 뉴스 소비자가 뉴스 속성에 대하여 지식이 많을수록 전통 뉴스 미디어와 새로운 뉴스 미디어를 모두 많이 사용하는데, 뉴스 검색/이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뉴스 전달/의견 표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새로운 뉴스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뉴스 관련도가 높을수록 전통뉴스미디어 사용보다는 새로운 뉴스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그 관여도가 뉴스를 전달하고 뉴스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뉴스를 검색하고 이해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뉴스 교육의 효과를 논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를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다양

하게 시행되고 있는 뉴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실적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30][31]의 문제의식을 정교화하면서, ‘뉴스에 관한 지식체계’와 ‘뉴스 관여도’를 강화하는 교육요소를 포함한 교육 과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이론 과정과 관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론 과정 등의 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적 검토에 포함된 변인의 범위로서 비교적 제한적 수의 변인만을 포함시킨 것은 추후 연구에서 보강되고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2000.
- [2] J. Hartley, *Understanding News*, Methen, 1982.
- [3] C. D. MacDougall, *The Press and Its Problems*, W.M.C. Brown Company Pub, 1964.
- [4] 이강수, *뉴스론: 미디어 사회학적 연구*, 나남, 2011.
- [5] W. L. Bennett, *News: The Political Illusion*, Longman, 2009.
- [6] 이동신, *정치사회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7] J. B. Thompson,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Polity, 1995.
- [8] B. Axford and R. Huggins, *New Media and Politics*, Sage, 2001
- [9] 김영주, 정재민, *국민의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 [10] Pew Research Center, *Pew Biennial news consumption survey*, Pew Research, 2010.
- [11] Associated Press (AP), *A new model for news: Studying the deep structure of young adult news consumption: A research report from the Associated Press and the context-based research group*, AP, 2008
- [12] N. Carr, *The Shallows*, Brockman, Inc, 2011.
- [13]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 신문의 미래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 [14] 김기태, 권혁남, 김양은,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신문발전위원회, 2007.
- [15] 김광섭, *지역신문을 활용한 사회과 탐구수업의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6] 김소영, *NIE 수업의 중학교 사회과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와 학습태도에의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17] 오승희, *NIE를 이용한 토론학습이 학습자의 언어적 지능에 따라 도덕과 흥미, 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18]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 *NIE와 교육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1.
- [19] 김양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20] 이미나, “청소년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효과 연구: 과당적 뉴스에 대한 프레임과 객관 보도규범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3권, 제1호, pp.111-155, 2011.
- [21] J. Dilevko,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Mass News Literacy: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Librarcy Quarterly*, Vol.68, No.4, pp.431-474, 1998.
- [22] 이정훈, “뉴스 리터러시: 새로운 뉴스 교육의 이론적 탐색”,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Vol.19, pp.66-95, 2012.
- [23] J. Potter, *Theory of Media Literacy: A Cognitive approach*, Sage, 2004.

- [24]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Hall, 1986.
- [25]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H. Freeman, 1997.
- [26]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27] J. L. Zaichkowsky,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No.3, pp.341-352, 1986.
- [28] R. Celsi and J. Olson,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5, pp.210-224, 1988.
- [29] A. Bandura,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T. Urdan, and F. Paiaras,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06.
- [30] 이성균, 윤영두,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온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468-476, 2010.
- [31] 최이정, "웹 콘텐츠의 정보제시유형이 어린이 뉴스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5권, 제3호, pp.113-122, 2005.

이 두 황(Doo-hwang Lee)

정회원



- 1996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사)
- 2011년 8월 : 미국 조지아 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 학과(매스 커뮤니케이션 석사)
- 2007년 8월 :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 학과(매스미디어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터랙티브 미디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규제와 정책

저 자 소 개

이 정 훈(Jeng Hoo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00년 1월 : 미국 조지아대학 매스미디어 석사
- 2006년 12월 : 플로리다 주립대학(FSU) 커뮤니케이션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뉴스교육, 미디어교육, 저널리즘